

윌름스 암 재단

미국 501(c)(3) 면세 자선단체 (EIN: 98-3478827)
712 H Street NE, Suite 2147, Washington DC, United States, 20002

info@WilmsFoundation.org | +1 (778) 514 5000

© 세계보건기구(WHO). 윌름스 암 재단(WCF)과의 협력을 통해 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습니다. “CureAll”은 WHO 세계 소아암 이니셔티브(GICC)의 일부입니다. 세계보건기구는 특정 단체,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지하지 않습니다.

www.WilmsFoundation.org



윌름스 암 재단

소아 신장암을 이겨내다

재단 소개

윌름스 암 재단(WCF)은 아홉 살 윌리엄 호지킨슨에게서 영감을 받아 설립된 자선단체입니다. 소아 신장암인 윌름스 종양으로 영향을 받는 어린이와 가족,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들의 필요를 대변합니다.



목표

인식 제고, 교육, 권익 옹호,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국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, 어린이와 가족, 의료진을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매일 질병과 싸우며 겪는 정서적·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.



윌름스 종양이란?

신모세포종(흔히 윌름스 종양이라고 함)은 소아 신장암 중 가장 흔한 유형이며, 전체 소아암 중 네 번째로 흔합니다. 때로는 요로 이상이나 다른 선천적 결함과 관련이 있습니다. 윌름스 종양은 주로 어린아이(대개 5세 이하)에게 발생하지만, 더 큰 어린이와 청소년, 때로는 성인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종양은 처음에는 신장에서 자라지만, 결국 신장 자체보다 훨씬 커집니다. 대개 종양과 신장을 모두 제거해야 하며, 진행된 윌름스 종양은 폐, 간, 뼈 등 다른 부위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. 결국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.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높지만, 많은 아이들이 수년간 진단받지 못해 좋지 않은 결과를 맞습니다. 이들은 흔히 항암화학요법, 방사선치료 또는 수술과 같은 광범위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

모든 부모에게 악몽 같은 일

등굣길에 단지 “배가 아프다”고 했던 윌리엄은 겨우 일곱 살에 4/5기 윌름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. 활발하던 이 소년의 검사에서 신장의 거대한 종양과 폐의 종양 아홉 개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.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며 여러 차례 수술과 장기간의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치료를 견뎠습니다. 마침내 어려움을 이겨냈지만, 새로운 종양이 생기며 여러 차례 재발했고, 결국 위험도가 높은 줄기세포 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.

조기에 진단했다면 이러한 고통과 스트레스, 마음의 상처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. 의료체계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부담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.

지원

윌리엄과 같은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. 무엇보다,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! 윌름스 종양은 조기에 발견하면 소아암 중 치료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암에 속하지만, 진단이 늦어지면 치료가 매우 복잡해집니다.





함께할 기회

WCF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놓인 어린이와 가족, 의료진의 정서적·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희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.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과 단체의 지원이 필요합니다.

